

#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 연구

## The Case Analysis in the Problem of Wedding Practices

성균관대학교 가족경영·소비자학과  
교 수 조 희 선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 사 류 미 현

Dept. of Family Life Management and Consumer Studies,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essor* : Hee Sun, Cho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Kon Kuk University

*Lecturer* : Mi Hyun, Ryu

### 〈목 차〉

- |             |              |
|-------------|--------------|
| I. 서론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 Ⅱ. 혼인의례의 배경 | Ⅳ. 결론        |
|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sis the problem of wedding practice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For this, it carried out literary research to understand the continuity and change in wedding practices. It also carried out case studies in order to find content and problems involved in present wedding practice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ssumption that wedding expenses are subject to parents if they are financially capable of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wedding expenses. Based on this assumption,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wedding expenses and ceremonies depending on the parents in charge of wedding, parents who charge of wedding tend to promote the extravagant wedding procedure to keep their needs of material goods, which distorts the content and procedure of wedding.

## I. 서론

### 1. 문제제기

혼인은 두 당사자들의 합의로써 결정되지만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가족과 친지 앞에서 혼인식과 같은 사회적으로 공고하는 형식을 통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됨을 선언하며 공인을 받는 것이 사회의 보편화된 현상이다. 다시 말해 혼인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남녀간의 성적, 경제적 결합이므로 사회적 관습이나 의식으로 인한 경제적 요소가 따르게 되고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형태의 경제적 비용인 혼수가 혼인을 전후하여 수반하게 된다(정용선, 1995).

이에 따라 혼인은 평등성에 기반한 부부 동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상당수의 혼인이 가족간의 협상에 따라 혼수를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과다 혼수로 인한 어려움은 오늘날 혼인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나아가 혼수시비는 혼인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가정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오늘날 혼인과 관련하여 무절제한 소비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혼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서 물질만능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상업화로 성격이 변질되었으며, 이것이 계층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혼인을 준비하는데 물질적인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매혼의 경우 혼수를 장만하는 정도가 당사자나 가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작용하여 혼인성립의 주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곡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면으로써 혼례문화의 상품화와 인간의 상품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곧 개개인으로 하여금 혼인시장에서 물질적 재화의 교환능력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게 하며, 한낱 물질에 불과한 혼수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계층에 관계없

이 혼인에 주어진 자원 이상의 과소비가 작용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자살, 파혼, 이혼 등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정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당면문제로까지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혼인에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식에 의한 경제적 요소가 따르므로, 혼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혼인의 필수요소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혼수는 다만 혼인생활의 필수품에 대한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양적, 질적으로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때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가족내의 갈등<sup>1)</sup>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가정파탄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신성한 혼인의 본의를 오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혼인문제는 혼인 성립의 핵심적 요소가 두 사람의 사랑과 합의의 결실보다 물질적 재화의 교환 즉 혼수의 교환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혼수비용을 점차 증가시키며, 우리사회가 갖는 고유의 현실적 문제로써 교육기간의 장기화, 군복무 등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늦추므로 혼수비용의 대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한다. 따라서 부모의 혼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sup>2)</sup>은 자녀교육비에 이어 더욱 가중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 혼인에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며, 또한 혼인에 대한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혼인당사자 스스로 혼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수관행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혼인 전과정의 비용과 내용 및 그에 대한 의식, 혼인후의 평가 등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의 혼수관행을 알며, 또한 혼인관행에서 발생하는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혼인관행의 방향제시에 기초가 되고자 한다.

1)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의 조사에서는 혼수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36.9%나 되었다.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의 조사결과에서 보면 혼수비용의 마련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 결혼전반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며 혼수비용이 가계에 부담을 준 경우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혼수관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우리나라의 혼인정신, 혼인절차 및 혼수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오늘날의 혼수관행의 문제점을 알고자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최근 2년안에 혼인을 한 사례로써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즉 혼수를 검소하게 장만했다고 사료되는 1500만원 미만, 일반적인 중산층의 혼수비용이라 생각되는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그리고 3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199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예비조사한 결과 질문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는 1997년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16일간 총 10사례를 선정하여 13명을 면접대상자로 하여 연구내용에 대해 직접·간접<sup>3)</sup>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수집을 위해 교수 2인과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된 총 4인이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하였다. 또한 건전혼례 사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한 사례(1997)를 보았으며, 혼수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1996)와 그 밖의 예를 참조하였다.

## II. 혼인의례의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인류사회에서 혼수관행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시장 경제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며, 이를 근거로 우리의 실제 전통혼례와 주자가례에 입각한 혼례과정, 산업화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혼인관행 가운데 물질적 재화교환인 혼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1. 혼수의 변화 배경

인류의 혼인은 사회적 관습이나 현실적 요구를 기초로 시대에 따라 나뉘는 대로의 의식과 이에 대한 경제적 요소 즉 혼인관행이 수반되었으며, 혼수는 교환방향에 따라 신부가족이 신랑에게 주는 것, 신랑가족이 신부에게 주는 것, 신랑측에서 신부의 친척 집단에 주는 것, 신부측에서 신랑친척 집단에 주는 것으로 구분되며, 수여의 양과 범위도 각기 다르다(Comaroff, 1980).

혼수관행의 변화를 보면 Goody(1983)는 혼수관행의 변화를 생산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즉,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상속할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교환이나 증여에 의한 혼인거래는 없었다. 그 후, 단순농경사회에서는 혼인시 신부대금(Bride price)이라 하여 신랑친족 집단에서 생활필수품을 신부친족 집단에게로 보내던 것을 신부 본인에게 지불하거나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간접 지불방식(간접지참금)을 행하였으며 이는 신부의 노동력에 대한 구매나 보상으로 또는 양 집단간의 상호 유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경사회의 축적에 따라 잉여재산이 생기면서 딸에게도 지참금의 형태로서 혼인할 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지위나 부가 비슷한 집안간에 혼인하는 계급내혼이 시작되었다. Casey(1989)는 지참금에 대해 딸에게도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아버지의 경제력 과시, 딸의 시집에서의 자율성과 지위 강화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의 조선시대 경우에는 혼인때 재물을 논하고 혼수의 과다문제를 경계하였으며 특히 사대부 가나 왕실에서 혼인의 사치를 금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sup>4)</sup>.

그러나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물질적 교환거래행위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 능력, 용모 등의 특성을

3) 직접·간접 : 사례의 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통해 조사대상자 외 혼인관계자(당사자 또는 부모)의 응답을 들음.

4)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세종은 혼례예단과 관련하여 간소하게 하도록 계하였는데 신부집에서 이불,

중심으로(Casey, 1989) 계층에 관계없이 과소비로 이어지면서 사회의 현안문제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 2. 우리 나라 혼인 및 혼수관행의 변화

우리 나라와 같은 동양에서는 의례를 중요시하여 왔고 특히 혼인의례에서는 부부의 결합으로서의 의식과 동시에 그 의식을 통해 가치관을 볼 수 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이광규, 1978). 여기에서는 한국의 혼인의례 중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과소비 혼수를 중심으로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와 연속을 고찰한다.

먼저 우리 나라 전통혼례의 기본정신은 부모와 천지(天地)와 배우자에게 도리를 다하여 잘 살 것을 서약하는 삼서정신과 남녀가 동등하다는 평등정신을 기초로 한다(김득중, 1996). 고구려의 혼속은 가취의 예를 간략히 하여 남자 집에서 돼지와 술을 보낼 뿐 빙재의 예(재물을 주고받는 예)는 없으며, 재물을 받는 자는 매비라 하여 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한다(北史 권 94, 列傳 제82, 고구려, 박혜인, 1991).

신라에서는 <혼취불용폐>라 하여 혼인에 폐물이 없었다. 고려 때도 귀인사족(貴人士族)의 경우 약간의 빙폐가 있을 뿐 서민들은 다만 술과 쌀을 보낼 뿐이었다(김용숙, 1989).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한편으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전통신라의 문화와 외래 중국의 문화를 조화시켜 나름대로의 전통문화를 수립하였다. 즉, 혼인에 예의식이 고취된 것은 고려말에 적극 권장된 주자가례를 근거로 하는 '가례(嘉禮)'의 시작에서 비롯된다.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문물제도와 일상의 관행까지도 중국의 예제와 일치시키려 하여 혼인도 주자가례에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원래 중국의 혼례는 周의 중법제도에 따라 육례(六禮)로서 납

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이며(한국민속학대관, 1980), 후대에 발간된 <주자가례>에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로 되어 있어 실제로 우리 나라의 혼인관행은 중국의 육례와 주자가례의 사례가 서로 혼효되어 도입되었으며 또한 지배층과 피지배층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혼수와 관련하여 「가례」 중 <혼례>의 '납폐' 대목을 보면 「폐백은 색이 있는 비단으로 쓰며, 집안의 형편에 따라 하되 두끝으로 하고 많아도 열끝을 넘지 않는다」는 기록에서 혼인 거래관행이 집안형편이나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한편 과다한 혼수비용에 대한 제재를 엿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혼수에 대한 제재와 융통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이후 근대화와 더불어 급격한 경제성장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요행의 기회포착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부모는 부 과시의 한 방법으로 자녀 혼인시 재산분배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자녀 재산의 기반을 형성해 주어왔다(박민자, 1991). 새로운 가정의 출발점인 혼인에서부터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상품화가 시작될 뿐 아니라 이러한 혼수사치 현상은 특히 19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어 배우자의 경제적 배경과 직업지위에 따라 인간을 물질화하여 평가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으로까지 진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혼인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분수에 넘치는 혼수를 마련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신랑감을 얻어보려는 신부측이나, 아들의 혼사를 통해 과다한 혼수나 예단을 요구하는 시부모들의 사고방식이 또한 혼인의 신성한 의례를 상품화시키고 있다(황경애·이길표, 1994). 실제로 결혼지참금 등의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sup>5)</sup> 약혼식부터 끊임없이 요구되는 혼수품목을 감당 못해 내려진 과혼<sup>6)</sup>, 본인 및 부모의 자살,<sup>7)</sup> 또는 아들이 의사라는 직업지위를 내세워 아파트 구입을 비롯한 일체의 혼

요 준비에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구하기 어려운 농금단자를, 복식으로는 사라능단을 금하며, 집의 재산여부에 따라 본토에서 생산되는 명주, 면포, 모시를 쓰게 하였다(세종 16년 1월 9일 계축)

5) 한국일보 1992. 4. 9; 1992. 5. 29; 세계일보 96. 11. 9

수를 요구하고 혼인 후에도 계속해서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며, 이로써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예<sup>6)</sup> 등에서 신랑의 유망 직업을 내세워 혼인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빗나간 혼인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신부의 혼수는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물질적 대가로써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신랑이 장차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망한 직업의 소유자일 경우 신부의 호화혼수는 앞으로도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김모란, 1994). 더욱이 자본주의 경제발달과 더불어 혼인의례와 관련한 상업화 현상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면서 혼인의례에서도 모든 가치의 척도를 상업주의에 기준하여 물질적 거래행위에 따라 평가하게 함으로써 경쟁적 과다혼수의 가치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는 곧 혼인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혼인문화가 갖는 전통을 왜곡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혼수는 혼례의 일부로써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전통혼례에서의 폐는 납폐와 후례인 폐백으로 양가 모두 과다하게 할 경우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며, 특히 신부 집에서는 신랑집의 납폐에 대한 답례와 인사로써 조출한 폐백만이 있었다. 더욱이 혼수로 인한 기처(棄妻) 또는 혼인파탄은 매우 예외적인 드문 예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시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혼수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평가한 나머지 이로 인한 가정파탄은 무한하며 이로써 혼수관행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딸에 대한 재산 증여와 상속의 방법으로 행해지던 지참금의 형식은 오늘날 재산의 정도를 막론하고 양적 질적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신부에게 해당하여 지참금을 포함한 일체의 가정생활용품, 시가에의 예단, 폐백, 이바지음식 등을 혼수라 하여 신부가 마련해야할 기본요소로 요구되는 풍속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혼례에서 혼수는 연

속되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혼수는 연속과 변화의 구조로써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전통혼례의 혼인 규범이 갖는 기본 의미와 형태가 왜곡 변모되어 나타나고 있다.

### Ⅲ. 연구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사례들의 혼인의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수의 내용과 의식을 분석하므로써 과다 혼수관행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 1.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혼인관행의 특성 분석

사례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학력, 본인직업, 부모직업, 부모소득, 혼인주관자, 혼인비용 등을 알아보았다(표 1).

조사 사례는 총 10사례로 이 중 사례 1, 2, 5는 신랑, 신부가 한 쌍의 부부이므로 총 면접대상자는 13명이었다.

조사사례의 연령을 보면 신랑은 28-33세 정도이었으며 신부는 25세-30세 였다. 또한 학력은 신랑, 신부 모두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이었으며, 신랑의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할 경우 20대 후반이 되므로 학교를 마치고 혼인하기까지 취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일 경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므로 부모가 혼인을 주관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사례의 신부 모두 대졸의 고학력이므로 대학 졸업후 혼인하기까지 경제력을 갖추는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취업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최경숙(1995)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도 일치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혼인 당사자의 직업에 있어 신랑은 모두 고용근로자로서 교사, 은행원, 회사원이었으며, 신부는 우리

6) 한국일보 98. 6. 1

7) 서울신문 98. 3. 24; 동아일보 97. 10. 18

8) MBC 뉴스데스크, 98. 5. 21

〈표 1〉 연구사례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연령	학력	본인 직업	부모직업	부모 소득	혼인주관자	혼인비용 <sup>a)</sup> (만원)
1	1-1	신랑	33세	대졸	교사	부:사망 모:농업	혼인당사자	1058
	1-2	신부	30세	대졸	교사	농업	혼인당사자	954
2	2-1	신랑	28세	대학원졸	회사원	부:중학교 교장 모:고등학교 교사	부모	2740
	2-2	신부	28세	대졸	약사	퇴직공무원 (현재 임대업)	부모와 혼인당사자	2500
3		신부	29세	대졸	없음	중소기업경영	부모	46060
4		신부	25세	대졸	없음	중소기업경영	부모	38270
5	5-1	신랑	31세	대학원졸	은행원	농업	혼인당사자	1394
	5-2	신부	29세	대학원졸	없음	임대업	혼인당사자	1467
6		신랑	28세	대졸	회사원	부:기업고용사장 모:유치원 경영	부모	24515
7		신랑	33세	대학원졸	회사원	중소기업경영	부모	14640
8		신부	28세	대졸	의사	전 국회의원 및 도지사	부모	6700
9		신부	25세	대졸	없음	중소기업경영	부모	43050
10		신랑	29세	대졸	회사원	기업대표이사	부모	2960

a) 혼수비용은 주택비용은 제외된 것

사회의 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직업을 갖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인 사례 1의 신부만이 직업인으로서 당사자가 혼인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사례 2인 약사 신부는 부모와 공동으로, 의사인 사례 8의 신부는 긴 교육기간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조사사례의 부모직업은 무직, 농업, 임대업, 학교

교장, 중소기업경영 등 상당히 다양하였다.

혼인주관<sup>9)</sup>을 살펴볼 때 두사례 부부(사례1, 5)만이 혼인 당사자가 혼인을 주관하였으며, 그 외 사례는 모두 혼인의 비용 부담과 소비를 부모가 주관<sup>10)</sup>하였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조사사례의 총 혼인비용<sup>11)</sup>은 혼인주관자에 따라 954만원에서 4606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사례의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혼수비용은

9) 혼인주관이란 개념은 주로 혼인비용 즉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본인주관이란 본인의 능력으로 혼인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 소비하는 것을 뜻하며 부모주관이란 부모가 자녀의 전체적인 혼인비용을 부담하고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조사에서도 혼수비용의 72.3%가 부모로부터 조달되어 부모경제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11)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의 혼례비용의 조사결과 남자는 평균 1181만원, 여자는 2109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혼인을 부모가 주관한 경우 본인이 주관한 사례 1, 5의 경우와는 비교의 차원을 넘게 많았다. 즉, 부모 주관인 경우는 우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로서 유교사상을 기초로 한 체면의식으로 인해 남의 이목을 중요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시욕, 상대방에 대한 물질적 과잉기대욕의 작용으로 과소비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본인주관인 사례 1, 5의 경우 본인의 단기간의 노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실용성을 중심으로 경제적 절약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혼인비용을 절감하였다고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 2. 혼인의례 과정에서 나타난 혼수관행

다음에서는 오늘날의 혼수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혼인의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수의 과다 준비 상황을 알고자 혼인절차중에서도 비용과 의식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약혼식, 배우자예물, 함, 혼례식, 예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약혼식

약혼식의 경우 혼인을 본인이 주관한 사례 1, 5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주관한 전체사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약혼식을 하였다. 사례 5의 경우는 혼인 전체를 본인이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혼인비용 절약을 기본으로 하며, 약혼식이란 '하나의 복잡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였다.

부모가 주관한 사례 2의 경우 '호화스러운 약혼식은 필요 없지만 혼례식전에 양가가 상견례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여 약혼식 대신 양가 부모와 형제가 모여 간단한 식사와 기회만 가졌다. 신랑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약혼식을 하지 않으면 양가 가족이 상견례할 기회가 전혀 없으므로 혼인당사자의 부모, 형제, 조부모만이 모여 간단히 식사하며 인사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지요"(사례 2 신랑 어머니).

하지만 부모가 주관한 사례 중 3, 4, 9의 경우에는

양가 상견례 정도라는 약혼식의 본 취지보다는 자신들의 부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혼인식 못지 않은 많은 하객을 초대하고 화려하게 하였다. 특히 사례 3의 경우는 사진촬영을 목적으로 약혼복만 해도 3벌을 구입하여 번갈아 입을 정도로 과소비를 하였다.

### 2) 배우자 예물

배우자 예물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대단히 컸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주관한 사례 5의 경우는 혼인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였으므로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정도로 간단한 14K 실 반지와 시계로써 최소한으로 하였으며 대신에 나머지는 주택비용에 포함시켰다.

부모가 주관한 사례 2의 경우 예물에 대해 양가 모두 검소하게 하자는 소신과 주관이 있었지만 혼인을 주로 부모가 주관하다보니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을 배제할 수 없어 요즘 세 가지 세트가 기본이라는 주변의 조언을 참고로 하였으며, 특히 다이아몬드에 비중을 두어 신부의 예물비용이 약 천만원이나 들었다. 이에 대해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실 평소 패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검소하게 간단히 하기를 원했지만 막상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해 주시는 대로 받고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때때나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부담으로 가장 간단한 것만 하고 다녀요"(사례 2 신부).

사례 6의 경우는 결혼후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어서 신랑 측에서는 주택마련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구입에 있어 신경을 써서 평생 착용할 수 있는 고가의 보석으로 해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랑측 어머니는

"평소 보석에 대해서는 안하면 안했지, 한다면 확실하게 좋은 것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며느리 될 아이의 옷이나 약세사리 등을 보니 워낙 고가의 것으로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추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지요. 글썄요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실용적으로 예물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아 패물을 착용하지 않거나 나중에 큰 것으로 교환하려고 한다면 더

낭비가 아닐까요. 그래서 평생 아쉬움 없이할 수 있는 것으로 했지요” (사례 6 신랑어머니).

또한 사례 3, 4, 9의 경우도 신랑의 예물에 있어 다이아반지 1캐럿과 로렉스 시계를 해 주었으며, 그 외에도 타이핀, 카우스버튼, 금단추 등도 빼놓지 않았다.

앞의 사례에 따르면 본인 주도하에 혼인 비용을 부담한 사례 1, 5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신랑, 신부측 모두 다이아 반지는 물론 신랑의 경우 신부에게 예물 세 세트는 기본으로 하는 경향이였다.

여기에서 중산층 이상인 부모가 주관하여 혼인하는 경우, 시부모로서의 체면과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례허식이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과소비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중산층 이상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자녀의 혼인에 비합리적인 과소비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 이기춘·조은정(1992)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더욱이 부모의 경제수준에 기준한 고가의 다이아반지 등의 예물은 오히려 젊은 혼인당사자에게는 과부담으로 작용하여 혼인 후 실제 작용하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예물에서의 과소비는 부모가 혼인을 주관할 경우(사례 2, 3, 4, 6, 7, 8, 9, 10) 혼인 당사자의 기대나 요구보다는 부모들의 과시풍조, 체면, 허례허식에 원인이 있으므로 부모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혼례문화 의식의 계몽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3) 함(납폐)

본인이 혼인을 주관한 사례 1과 5의 두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주관한 모든 사례에서 함을 하였다. 사례 1의 경우는 함은 좋은 전통이라 생각하나 번거로움, 자칫잘못하면 쓸데없이 많은 경비를 들일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서로의 의견일치로 생략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례 3, 4, 9의 경우는 당일 함

값이 600만원 이상이나 들었다.

사례전체에서 볼 때 함에 대하여 전통을 보존한다는 의미로써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함값이라는 불필요한 폐단이 날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점차 혼인 당사자나 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함에 대해 사례 2의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평소 부모님께서서는 혼인에 앞서 간단하게 함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막상 함 당일에 가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셨어요. 신랑 친구들이 원래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부모님께서서는 당신들이 생각하신 함값 50만원은 많이 부족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위 친구들에게 사위의 체면이 말이 아닐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함값의 두배인 100만원을 내 놓으셨지요. 또한 혹시 흥이나 나지 않을까 해서 음식상도 최대한으로 차리셨어요. 결국 혼인에 앞서 부모님께 또 한번의 부담을 드린 셈이 되었지요”(사례 2 신부)

따라서 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전통문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에서 간소하게 치르거나 본인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4) 혼례식

혼례식 비용은 혼인 주관자에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례의 대부분이 예식장을 이용하였으며 예식장의 끼워팔기식의 상업화<sup>12)</sup>로 본인 주관일 경우도 이는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피로연은 혼인식 시간과 관계없이 하객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과소비를 유발하였다. 하지만 기타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7, p15-19)에서 제공하는 대표 사례에서는 예식장이 아닌 공원을 이용함으로써 식당 비용이 무료일 뿐 아니라 드레스, 사진, 미용 등도 본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혼례식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12) 혼례식과 관련하여 상품시장에서는 신부화장과 드레스대여, 사진과 예식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로간의 연결망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묶어놓기도 하며, 또 조금씩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주기의 유행을 만들어 내고 있다(이효재, 1992).



본인이 혼인을 주관하여 비교적 검소한 혼인을 치른 사례에서도 예식장 사용을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사회 기관에서 예식장소의 무료사용이나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부항목의 선택기회가 없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예식장의 횡포와 딱 한 번 이라는 유혹으로 비용을 많이 들인 점이 못내 아쉽군요”(사례1 신부)

“신랑이 학교 교우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여 선택하였으나 사진 등은 물론 피로연으로 부폐까지 해야 한다는 강제성 때문에 피로연 비용이 결혼 비용의 1/3은 차지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하객에 대한 인사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너무 부담이 컸어요”(사례2 신랑어머니)

### 5) 예단

예단의 경우 본인이 주관한 사례 1, 5는 시부모님과 시형제의 범위 내에서 예단의 형식을 갖추며 마음만을 전달하는 정도의 선물로 준비하였다.

부모가 혼인을 주관한 경우에는 사례마다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 사례 3, 4, 9는 현금과, 시모의 밍크코트, 다이아반지까지 하였으며, 사례 3은 예단을 넣는 예단케까지도 전통기능보유자의 것으로 많은 돈을 들였을 뿐 아니라 혼수장만을 위해 홍콩에도 몇 차례 다녀왔다고 한다.

특히 사례 3은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로써 신랑의 사회적 지위와 신부의 물질적 재화의 교환(예단 비용 1억 2천 2백만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다. 신부 어머니는

“우리 사위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집도 장만해 주려 하였으나 사돈께서 이미 장만하였다 하여 너무나 미안하였어요. 그래서 조금 후하게 예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것이 판사 사위를 낳고 길러준 사돈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주고 싶은 사위한테 마음껏 주는데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는 없잖아요”(사례 3 신부어머니).

### 신부도

“시아버님이 검소하신 분이라 순위 두 동서로부터는 아주 간단한 예단을 받으셨던 어머니가 저의 예단에 대해 과하다고 하시면 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떳떳하고 만일 이 정도의 예단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어떠하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사례 3 신부).

이상의 사례는 신랑의 사회적 지위와 신부의 경제력의 교환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히 신부 측의 호화성 혼수, 경쟁적 혼수, 남을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의식의 결여가 바로 오늘날 과다 혼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예단으로 ‘떳떳했다’는 신부의 말은 앞에서 지참금에 대해 시집에서의 자율성과 지위강화의 의미로 설명한 Casey(1989)의 말을 입증하고 있다.

신부의 과다 혼수에 대해 판사 신랑은

“처가 집에서 잘해 주시니 기분 좋고, 많이 갖추니 편해서 좋은 것 아니겠어요”(사례 3 신랑).

편할수록 좋다는 안이하고 의존적인 차세대 지도층의 이와 같은 간단명료한 말을 통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의식의 결여를 단적으로 보는 듯하다.

다음의 예는 우리 사회의 일부 상류층의 병리현상으로 오늘날 혼수로 인한 사회적 병폐로 주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미팅에서 만나 좋아했던 남자 친구를 못마땅하게 여기시어 두 언니처럼 중매인을 통해 지금의 의사 신랑을 구하시고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언니들 못지 않게 최대한의 혼수를 해주시겠다고 했지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혼수 품목 명세표를 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 예단으로는 유명메이커의 더블베드, 보료, 명주 솜을 넣은 이불, 밍크코트, 다이아반지, 시아버지 예단으로는 한복용 호박단추, 금단추, 다이아반지 등 그 외에도 아파트, 예물, 살림용품까지도 정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셨고 저도 그런 결혼을 꼭해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도 사업이 어려운 시기여서 망설이셨지만 어머니는 제 혼인을 위해 무리

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사례 9 신부).

이러한 문제는 신랑의 직업지위에 대한 대가로 과도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신랑과 시어머니, 직업적 무능력자로서 남편의 직업지위로 평생동안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려보고자 어떠한 굴욕감과 요구도 마다 않는 신부측의 가치관이 맞물려 발생하는 예일 것이다. 결국 이 혼인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요구(병원개업, 아파트 구입 등)에 따라 현재 별거 상태이며, 신부는 거의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애정과 신뢰를 무시한 채 배우자를 물상화하여 물질교환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왜곡된 혼인관의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혼수로 인한 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1998)와 그 밖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가정법원의 판례(1996)에서는 역대 지참금과 혼수를 받고도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구박한 의사준비생과 시부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sup>13)</sup>

또한 주부전문인클럽이 98. 5. 28일 지역사회교육관에서 주최한 “바른혼수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혼수준비 실패사례 중의 하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약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시어머니는 약혼식 장소며 음식, 의상의 종류까지를 지정하여 예상비용의 5배를 지출했으며 약혼식이 끝난 후에도 3,000만원짜리 병풍에 모호텔 지하상가에서 판매하는 합을 마련해오라, 60여만원짜리 신랑의 금도장을 해오라는 등 혼수요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결국 파혼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sup>14)</sup> 이외에도 혼수로 열쇠 5개(아파트, 자동차, 콘도, 금고, 사무실 열쇠)를 요구하여, 고민하다 가정법률 상담소를 찾은 30대 초반의 여성도 있었다.<sup>15)</sup>

오늘날 물질주의적 사고가 팽배해 지면서 혼인시 혼수에 초점을 두어 무조건 “더 좋은 것” “남보다

많이”를 추구하므로 혼수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사례 2의 경우에는 신랑측에서 예단으로 신부측에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예단을 사양하였지만 혼인식 후에 신부측에서 그냥 지나치기가 서운하다 하여 가까운 형제, 친척에게 줄 은수저 트를 보내왔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면 예단은 사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혼인 주관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례에서 신랑 측에 대한 예단을 생략한 사례는 하나도 없었으며 자신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사례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모가 혼인을 주관한 사례에서 볼 때 우리 전통혼례에서 예단이란 시집 가족에게 예를 갖추어 간단하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점차 변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sup>16)</sup>, 재물을 주고받는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예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 IV. 결론

전술한 사례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여 혼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 혼인 의례 가운데 본 연구의 초점인 혼수는 전통 혼인정신인 삼서정신과 평등정신에 기초하여 볼 때 위배되고 있다. 즉, 본인주관으로 혼례를 진행할 때는 신랑, 신부가 함께 의논하여 검소하고 평등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나, 중산층 이상의 부모주관인 경우는 신랑측의 혼례방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신랑측의 사전 사양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무난히 해결될 수 있었으며 또한 사전 사양을 받았음에도 신부측은 불안한 마음에 간소하게라도 가족 예단을 대신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더욱이 혼인이 파경에 이른 연구사례(사례 9), 판례 등을 예로 보면 혼수는 혼인 후까지 연장 확대되어 시가에서

13) 한겨레신문 98. 5. 22.

14) 한국일보 98. 6. 1.

15) 서울신문 97. 10. 27

16) 서병숙(1997)의 연구에서는 예단은 혼인을 앞둔 양가에서 상대방 가족에게 예를 갖추어 선물을 전달하는 관행이지만 신부측에서는 전체의 33%가 가장 부담이 되는 혼수의 한 항목이라고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한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사회병리 현상인 과다 혼수관행은 부모주관에, 시가중심에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혼인주관자에 따라 특성을 비교하면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혼인 당사자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의례중심이기보다는 실용성을 기초로 하므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혼인 비용을 줄이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많은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가 주관하여 비용도 거의 부모가 부담하고 있었다. 이는 신랑의 경우 대학교육과 군복무를 마치면 이미 혼인 적령기에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부 역시 우리사회의 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문제로 직업을 갖기가 어려우며,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대체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체면문화로 인하여 개인과 가문의 사회적 체면 때문에 부모로 하여금 무리한 비용을 들여 혼인 상대방에 대한 예물, 예단은 물론 하객에 대한 예의로서의 피로연 등을 치르게 하였다.

셋째, 신부의 과다 혼수는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물질적 대가의 성격을 띠므로 장차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는 유망한 직업을 가진 경우 신부의 호화혼수는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과다 혼수의 문제는 신부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신분상승의 욕구에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을 미끼로 아들의 직업으로 물질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시어머니와 신랑 역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는 혼수문제의 유발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물질주의에 기초한 과다 혼수는 부모의 주관에 원인이 있으므로 부모 역시 빚나간 혼인문화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다 혼수관행의 문제는 세대와 성을 막론하고 모두가 동참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혼수의 기초가 되는 신부값과 지참금에 대한 사례에서 그 본의의 변화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부값은 본래 신부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집의 경제력 과시, 신랑의 여성 보호능력의 과시로써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오

늘날 중산층 이상의 부모가 혼인을 주관하는 경우 신랑집의 체면, 경제력, 신부에 대한 예우 등이 복합되어 예물을 기본적으로 3세트 이상을 하는 변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지참금은 전통적으로 단순한 재산상속과 증여의 형태로서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지참금과 함께 각종 생활용품과 예단이 포함되어 혼수로서 표현되고 있다. 때로 이것은 신부집의 경제력 과시, 시집과 남편으로부터의 일정한 지위확보, 남편의 직업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오늘날 사회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과다 혼수의 주체자들은 자신들의 과소비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소비하는데 주력하였다. 즉,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본주의를 왜곡 해석하는 친정 부모, 아들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 물욕을 충족하고자 하는 시부모, 다른 형제보다 많은 혼수로 시집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신부, 많을수록, 편할수록 좋다는 신랑, 이들 모두의 사회의식 결여에 의한 과다 혼수는 하향 전이되어 다음 계층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매우 크므로 결국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혼수의 문제점은 개인의 물질주의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허위욕구와 과잉기대,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관, 사회의식 결여 등 개인의 정신 심리적 요소, 자본주의 시장확대에 따른 혼인 시장의 상업화로써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 체면문화 등이 상보적, 집합적으로 맞물려 연속과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과다 혼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혼인 준비 과정을 혼인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하여야겠다. 즉,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혼인 당사자가 준비함으로써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으로 한정하며 그 나머지는 장래의 가계재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계층에 따라 혼수의 내용과 비용에 차이가 났지만 특히 혼례식의 경우에는 건전혼례 사례에서조차도 예식장에서의 드레스, 미용, 피로연 등의 끼워팔기식 상업화로 인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혼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고 당당히 실천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예식장에 대한 이러한 횡포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정책적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의 건전한 사회의식을 고취하며 허례허식과 체면문화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인당사자나 부모들을 위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차원의 혼수에 대한 체계적, 구체적 교육이 필요하며, 아울러 혼인적령기에 접어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이나 민간사회단체를 통한 건전혼례 교육도 필요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김득중 외(1996). 알기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 김모란(1994). 한국사회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 김용숙(1989). 한국여속사. 서울:민음사.
- 동아일보. 1997년 10. 18일자.
- 박민자(1991). 도시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박혜인(1991). 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서병숙 외(1997). 혼례관행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제2회 심포지움. 서울신문. 1997년 10월 27일자.
- \_\_\_\_\_ 1998년 3월 24일자.
- 세계일보. 1996년 11월 9일자.
- 이기춘·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 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이광규(1978).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일지사.
- 이효재(1983).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결혼비용실태 및 의식조사.
- 정용선의외(1995). 혼수의 사회적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 최경숙(1995). 결혼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교환의 관점에 대한 연구 -도시 중간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 한겨레신문. 1998. 5. 22일자.
- 한국민속학 대관(198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77). 제 1회 새로운 혼례모델 공모전 사례집 "이런 결혼 어떤가요?".
- 한국일보. 1992. 4. 9일자.
- \_\_\_\_\_. 1995. 5. 29일자.
- \_\_\_\_\_. 1998. 6. 1일자.
- 황경애·이길표(1994). 혼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Casey, James,(1989). The history of the family Oxford: Blackwell.
- Comaroff, J. L.ed.(1980). The meaning of marriage payments. New York: Academic Press.
- Goody, Jack,(1983). The development of the family and the marriage in Europe London: Cambridge Univ. Press.